

“광주 민간공항, KTX 2단계 개통 맞춰 무안 이전”

광주시장·전남지사 공동발표문

군공항 이전 의미있는 진전 단서 시·도, 무안군 설득위해 공동노력 지원조례·지역발전 비전 등 추진 “무안군수 만나러 함께 가겠다”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이전하겠다’고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7개월 전인 지난 5월 만남 이후 진일보한 것으로 양측은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17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도지사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에 서명했다.

공동발표문은 총 5개 항목이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에 뜻을 같이한다’고 전제했다.

1항은 ‘군 공항 이전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했다.

2항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

께 적극 소통한다’, 3항은 ‘시·도는 국방부, 양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소음피해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4항은 3가지의 포괄적 방법으로 △광주 군공항 유지지역 지원 조례 제정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 추진 △무안공항 활성화 공동 노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인 5항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에 맞춰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및 인접 시·군이 함께 공동회의를 개최한다는 합의가 명시됐다.

김 지사는 발표 후 “충분한 토론을 한 끝에 이번 발표문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단서 항목인 ‘의미있는 진전’에 대해 강 시장은 “지금 해석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너무 복잡하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진전이 있을때 논의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도 “오늘 발표할 사안은 아니고, 향후 시도가 노력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다”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발표문이) 정해졌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논란이 있었던 함평군 이전 문제도 양 시·도지사간 대화에 포함됐으나 양측 모두 이번이 이전을 위한 마지막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여기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 ‘무안군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두 사람은 또 “무안군수님을 만나러 함께 가겠다”고 말해 함평을 비롯한 제3의 후보지 이전은 더 이상 공식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시장은 “무안군정 책임자들과 적극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면서 “무안 역시 발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발전해야 한다는 흐름을 거부할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면에 계속
노병하 기자



광주 무대인사

영화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 이성민·정우성·황정민 배우 등이 17일 광주 북구 메가박스 전대점 영화관에서 관객들에게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1000만 질주 ‘서울의 봄’ “광주시민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감독·정우성·황정민 “5·18자유공원 등 촬영 뜻깊어” 8곳 22개 상영관 ‘전석 매진’

1000만 관객을 목전에 둔 영화 ‘서울의 봄’ 출연 배우들이 개봉 4주 차 주말 무대인사를 위해 17일 광주를 찾았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메가박스 전대점 등 8곳 22개 상영관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낮 12시부터 시작된 무대인사 첫 순서는 메가박스 전대점 상영관 7관. 긴장한 표정의 배우들 너머 응원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부터 ‘N차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로 가득했다.

영화는 12·12군사쿠데타를 다루고 있다. 12·12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의 다음 시나리오가 80년 5월 광주의 비극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무대인사는 43년 만에

돌아온 ‘광주의 봄’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영화의 주요 장면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촬영된 만큼 출연진들은 다시 광주를 찾은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성수 감독은 “영화 촬영을 위해 광주, 화순, 순천, 광양에 여러 번 왔는데 개봉 후 다시 광주에 오게 돼 설렌다”며 “광주에서는 가톨릭평생교육원, 조선대, 5·18자유공원 등지에서 촬영을 했다”고 말했다.

전두환을 모티브로 한 전두광 역의 황정민 배우는 “출연 배우들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작품에 임했다”며 광주와의 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란을 진압하려 노력했던 당시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역할을 한 이태신 역의 정우성 배우는 “광주로 다시 오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촬영 당시만 해도 극장 상황이 좋지 않고 쉽지 않은 영화이기 때

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광주시민들 덕분에 더 멋진 영화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 수모를 겪은 실제 인물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기한 이성민과 김진기 헌병감을 연기한 김성균 배우도 “서울의 봄이 43년 만에 광주에 돌아왔다. 괜히 울컥한다”며 “왜 영화를 봐야 하는지, 광주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를 찾은 서울의 봄 팀은 김성수 감독을 비롯해 전두광 보안사령관 역의 황정민,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 역의 정우성, 정상호 참모총장 역의 이성민, 노태건 9사단장 역의 박해준, 김준업 헌병감 역의 김성균, 장민기 수경사 30경비단장 역의 안세호 배우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사람들 (581/1000)

박명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 관련 기사 17면

전라남도 **생명영광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귀농·귀어·귀촌 1번지 전라남도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1577-1425

전남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구청년정책관실
서울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4층 1401호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전남귀농산어촌 누리집 바로가기
전남귀농산어촌 카카오톡 상담하기
귀농TIME 유튜브 바로가기